

손명수 차관 ‘코로나19 극복과 미래 대응을 위한 항공정책 혁신’ 강조 27일 공항공사·교통연구원 간담회서 ‘항공산업 뉴노멀 선제적 대응방안 심도 논의

- 손명수 국토교통부 차관은 5월 27일(수) 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교통연구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항공정책 여건 변화와 정책이슈를 진단하고,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선도할 정책 아이디어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.
- 이날 간담회는 지난 국토연구원(5.11), 건설기술연구원·도로공사(5.19)와의 간담회 등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, 코로나19가 항공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, 디지털·그린 뉴딜, K-방역 국제 리더십 확보, 언택트 공항운영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과 정책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“공항을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철저히 구축하여 국내 코로나19 진정세에 크게 기여”하였다고 평하면서, “우리의 방역 모범사례를 세계로 확산시키고 표준화하여 국내외 항공수요를 조기 회복”시키는 등 국민에게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각 기관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.
- 또한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우수한 국가기반시설과 정보통신 환경 등을 활용한 스마트 공항을 현실화 하는 등 디지털 SOC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,
-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감염병과 같은 위기에 항공산업이 자생력을 가지도록 공제조합과 항공기 보증 제도 등 항공금융제도를 마련 하여, 항공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하였다.
- 손 차관은 “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감한 역발상”임을 강조하며, “전문가들과 공공기관이 국토부와 함께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심도있게 논의 할 수 있는 자리를 정례화하겠다”고 밝혔다.

□ 개최목적

- 코로나19 이후 항공 분야의 여건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논의
 - 포스트코로나 시기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 항공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장단기 전략 및 추진과제 발굴·논의

□ 행사 개요

- (時/所) '20.5.27(수) 09:30~11:20 /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(2층)
- (참석자) 국토부 및 교통연, 공항공사 관계자 73명
 - (국토부) 2차관(주재), 정책관, 과장 및 계장 등 26명
 - (교통연) 부원장, 항공교통본부장 등 13명 / (대한교통학회) 2명
 - (兩 공항공사) 부사장, 본부장, 처장, 팀장 등 29명 / (항공협회) 3명
- (진행방식) 정책 과제 발제 후 실무자 아이디어 중심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자유 토론, 발표·답변 형식은 지양

□ 세부 진행계획

구 분		내 용	비 고
1. 모두말씀	09:30 - 09:40 (10")	인사말씀 및 참석자 소개	2차관님
2. 발제	09:40 - 09:45 (5")	▷ 교통연구원 ① 포스트코로나 항공분야 전망 ② 대응전략 및 추진과제	교통연
	09:45 - 09:50 (5")	▷ 인천공항공사 ○ 포스트코로나 정책 아이디어 제안	인천공사
	09:50 - 09:55 (5")	▷ 한국공항공사 ○ 포스트코로나 정책 아이디어 제안	한국공사
3. 토론	09:55 - 11:15 (80")	자유 토론	참석자
4. 폐회	11:15 - 11:20 (5")	마무리 말씀	2차관님